

在日 濟州人 사회에서의 巫俗

—大阪 이꾸노 지역을 중심으로—

李 文 雄*

1. 이꾸노의 제주인 사회

재일동포사회, 특히 오오사카의 동포사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간에는 더러 이꾸노(生野區)지역이 하나의 '작은 濟州(리틀제주)'에 비유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약 7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재일동포 중에서 한국의 특정지방으로부터 온 동향인들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살고 있는 사례로는 가장 규모가 큰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오사카는 현재 약 19만명의 우리 동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일본 전국의 都道府縣 중에서도 한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재일동포 전체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오오사카 중에서도 동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이꾸노로, 1985년의 통계로는 한인의 수가 38,456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에 약 2/3 정도로 추산되는 사람이 제주도 출신이거나 그들의 자손들이어서, 실로 이꾸노는 '작은 濟州'라고 해서 별로 손색이 없을 만한 곳이다.

이렇게 큰 규모의 제주인사회가 형성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 1923년 2월에 제주도와 오오사카를 잇는 직행항로가 개설되어, 이 정기항로를 따라 제주도의 西歸浦를 떠난 사람이 일본에서 첫 발을 디디는 곳이 오오사카였기에 그곳에 제주사람들이 집중되었고 그것이

* 서울대

현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지역의 제주사람들은 이제 일본사회에 뿌리를 깊이 내려 이주민사회로서는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꾸노의 제주사람들이 ‘작은 제주’의 이미지를 형성한 것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제주도 토착문화의 요소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 같다. 여기에는 제주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토속음식들이 있고, 제주도의 방언들이 살아남아 있다. 현재의 제주도에서는 이미 상당히 변모하여 찾아보기 힘든 문화요소들이 이곳에서는 제주사람들의 일상생활과정에 여전히 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 보다 더 제주도다운 곳”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거기에서는 회노애락을 서로 나누어가지는 훈훈하고 따뜻한 인정이 있고, 어려운 일을 서로 돕고 사는 상부상조의 전통적인 생존전략들이 제주사람들을 여전히 한 덩어리의 “우리 제주사람들”로 묶어 놓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향의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모여 살고, 제주사람들이 제주출신과만 혼인하는 내혼의 관습, 직업분야에서도 동향의 사람들끼리 접촉 내지는 거래하는 경향이 높아서 제주인사회를 사실상 하나의 ‘사회적인 섬’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작은 제주’의 이미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어느 문화에서나 관념적인 구성요소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신앙체계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기둥이 되고, 현실생활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나가는 효과적인 전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양식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꾸노의 제주인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앙체계의 한 측면인 무속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제주인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는 주로 본인이 1988년도 1년간 오오사까의 이꾸노에서 “제일한인사회에서의 문화접변에 관한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에서 얻어진 것이고 이 논문은 위의 연구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이문웅

1988 참조).

2. 이꾸노의 생태학

이꾸노는 오오사카의 중심부를 싸고 한바퀴 도는 전철 <JR 環狀線>의 동남쪽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한인들이 정착하기 이전만 해도 거의 버려진 땅이었고, 저지대인 이 지역을 가로질러 남북으로 뻗어있는 '히라노가와(平野川)'라는 운하는 사실상의 배수로라고 하겠다. 1923년에 이 운하를 개수하는 공사에 한인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되었고, 이때 이 지역에 세워진 밥집 바락크를 중심으로 한인촌이 형성되었던 것이 지금의 이꾸노 동포사회의 효시가 되었다.

옛날에는 이꾸노의 중심이 '이카이노(猪飼野)'로 알려진 곳이었다. 이곳은 아직 동포의 밀집지역이고, 여기에 朝鮮市場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는 식료품, 음식, 의류, 제사 및 의태용품 등 한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곳이다. 이 시장에 가까이 접근하면 김치 냄새, 불고기냄새 등 민족음식의 냄새를 쉽게 맡을 수 있는 곳이고,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에는 물론이고 특히 명절 때에는 오오사카 및 關西지방의 다른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동포들도 시장을 보러 몰려들어 성시를 이루는 등 '민족시장'의 역할을 해왔다.

'민족시장'으로서의 朝鮮市場의 역할은 이제 상당한 부분이 여기에서 북쪽으로 약 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쓰루하시(鶴橋)의 國際마켓트로 빼앗겼다고 할 수 있다. 쓰루하시는 위의 환상선과 오오사카의 나라(奈良)로 가는 전철[近鐵奈良線]이 교차하는 곳으로 교통의 요충이어서 적어도 상권의 측면에서는 이제 이꾸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도 역시 이카이노의 朝鮮市場에 못지 않은 각종 민족품목들이 판매되고 있어서 오오사카 및 인근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다. 사실 이 두 시장의 상권은 제주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 수적으로 봐서 상업에 종사하는 동포는 소수이고 대다수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전통이 강한 일본사회라는 배경 탓도 있겠지만, 이꾸노의 동포들은 그 대부분이 일본인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는 분야를 찾아서 각가지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찾아서 다양한 제조업 분야를 개척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여성용 샌달 제조업으로 적어도 이분야에서는 이꾸노가 일본 전국에서도 중요한 산지로 손꼽힐 정도이다. 이 산업은 수 많은 공정으로 나누어진 분업체계를 이루고 있고, 특히 일손이 많이 가며, 본드로 부품을 붙이는 일이 많아 여기에 필수적인 화학약품들 특히 인화성이 강한 신나의 위험이 뒤따른다. 이외에 철공소, 플라스틱 부품 제조 등 시끄러운 소리가 많고, 기름투성이의 작업이든가, 냄새가 고약하고 위험이 따르는 등 일본인들에게 별로 매력이 없는 분야에서 그들은 생활의 기반을 닦았다. 이것은 우리 동포들에 대한 일본인의 민족차별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만약 그들이 분야에서 일본인들과 경쟁관계에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꾸노는 서민 거주지역이며, 주택사정에 열악한 편이다. 여기에 추가해서 대부분의 주택들이 가내공장을 겸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인지는 몰라도 이곳에는 유난히도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수십년 고생을 거듭한 끝에 일구어 놓은 사업과 재산을 화재로 일시에 날리고 빈털털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곳에서는 쉽게 들을 수가 있을 정도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는 동포들의 생활과정 그 자체가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민족차별의 대상이었다는 점과 함께, 많은 동포가족이 경험한 법적 지위상의 문제는 생활과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해방전만 해도 오사카의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와 일본을 마치 이웃집 드나들듯이 왕래가 잦았다. 주택사정이 열악하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자식을 낳으면 고향 제주도로 보내어 부모나 친척에게 수년간 맡겨놓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렇게 하여 제주도출신의 동포들간에서 이미 중년이나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 중에 일본 태생으로 어린시절을 제주도에서 수년간 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

다. 해방후 이런 이산가족의 상당수가 부모와 가족을 찾아 일본으로 밀항했고, 친척이나 친지가 살고 있는 일본으로 살길을 찾아 밀항해온 사람 등 재일 제주인들 간에는 법적지위 문제로 일본의 사직당국에 쫓기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 결국 재일제주인의 신앙생활에 까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제주사람의 신앙생활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무속은 생활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모든 제주도 출신의 동포가 무속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무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심방이나 보살이 제주도 출신이고, 그들의 고재의 대다수가 제주도 출신의 동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주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무속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임이 틀림 없다(Hardacre. 1984 참조).

사실 이꾸노의 제주사람들간에는 심방이나 보살, 더러는 스님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관해 상담역을 맡고 있는 예를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가업이 기울어지거나, 화재, 질병 등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이들 의례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하고 많은 경우에 해결책은 곳으로 귀착된다. 사실 이꾸노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인가 의례행위를 하는 무악의 소리를 가끔 들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이런 소리가 이웃으로부터 항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사실 무속에서의 의례행위의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시끄러운 무악을 동반하기에 그것이 몇일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도시의 주택가에서는 벌어지기가 어렵다. 그러기에 곳은 거의 예외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한적한 산기슭의 ‘朝鮮寺’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朝鮮寺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大阪과 奈良사이를 가로질러서 위치하고 있는 이끄마산(生駒山)과 시기산(信貴山)으로 이어지는 산맥의 오오사까 쪽 기슭이다.

1982~83년에 일단의 종교사회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이 지역의 朝鮮寺들을 조사한 바(宗教社會學의會, 1985)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무려 65개의 朝鮮寺가 확인되었다. 이 朝鮮寺들 중에서 소유주나 주지의 출신지로 따져서 확인될 수 있었던 40명중 거의 반수에 해당하는 18명이 제주도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경남으로 10명이었고 나머지 道에서는 3명이하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지역의 朝鮮寺들은 거의 소수의 예외를 제하고는 거의 심방이나 보살의 ‘굿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이꾸노와 같은 도시의 주거지역에서 살면서 단골 가정으로부터의 상담에 응하고, 굿이 있을 때에는 절에 가서 의식을 집행한다. 물론 약간 규모가 큰 절에서는 심방이나 보살이 절에 상주하면서 신도들을 맞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朝鮮寺’라는 용어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릴 필요가 있다. 이 용어는 ‘조선사람들이 다니는 절’이라는 일반적인 명칭이다. 개개의 절은 거의 대부분이 ‘(무슨)寺’라는 절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주 드물게는 ‘(무슨)院’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소수의 예외를 제하고는 朝鮮寺는 한국에서와 같이 불교사원으로서의 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즉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심방이나 보살이 이런 朝鮮寺를 운영하고 있고, 더러는 소유주가 한국에서 유학온 스님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제일동포 사회의 특이한 측면인 것 같다. 아마도 이것은 일본문화 그 자체가 불교를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이꾸노는 동쪽으로 天王寺區와 접해있고, 그 지역에는 오오사카에서 檀家寺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수백개를 헤아릴 정도이다. 즉 에도[江戸]시대 이래로 주민통치체계의 하나로 특히 도시의 각 가구는 어느 절의 檀家로 소속되어 있어야만 했던 정책에서 비롯된 이런 관습이 지금까지 남아 있고, 이웃하는 일본인들의 이런 관습을 보는 동포들에게는 가정과 절이 마치 하나의 단결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아무런 부담이 없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던 것 같다.

또한 한국에서와는 달리 일본의 불교사원들은 종파가 수없이 많아서 마치 구멍가게를 차리듯이 새로운 독립적인 절을 설립하여 '(무순)寺'라는 이름을 붙이고 영업을 시작하는 데에 별다른 저항감이 없다. 뿐만 아니라 심방이 승려복 차림으로 승려행세를 하고 절을 운영해도, 그가 자신의 단골만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설득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인 배경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朝鮮寺들의 난립현상을 읽을 수가 있다.

제일동포사회에서의 巫俗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朝鮮寺들에서는 액땀이곳에 해당하는 '야쿠바라이[厄拂い]'나 신도들을 모아 야외로 나가 거행하는 방생 등과 같이 신자들을 모아 놓고 매년 정기적으로 거행하는 의례행사가 있는가 하면, '시왕마지'나 '오귀굿'과 같이 신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거행되는 크고 작은 굿들이 벌어진다(飲甲, 1987 참조).

절에서 벌어지거나 절이 주관하는 정기적인 의례행사에 참여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행사는 가정과 절을 연결시키고, 의례전문가와 신자가족간의 관계(patron-client)를 유지하고 다지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 朝鮮寺들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신자들의 단체조직이 없다. 거기에는 의례전문가와 고객간의 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정기적인 의례행사에 모이는 사람은 특히 제주도 출신의 심방이나 보살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신도들이 제주도 출신이어서 적어도 1세대들간의 대화는 제주 방언이 지배적이다. 또한 거기에는 고향 및 고향사람들에 관한 정보가 교환되는 등 고향사람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장(場)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부인들만이고, 제주도에서 살아본 경험이 생생한 1세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더러는 일본 태생의 젊은 2세 부인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오거나,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참석하든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런 행사는 제주도 토착문화의 세대간 전승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는 달리 개개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굿은 대체로 다양한 형태의 재앙, 불운, 질병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의례전문가와 고

객의 관심사라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가능한 대로 친속관계의 네트워크가 동원된다. 이런 경우 굿의 스폰서의 친척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예외로 간주되고, 스폰서 가족의 아픔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 실제의 의례과정에서는 스폰서의 친정 및 시댁과 관련이 있는 제주도의 온갖 하르방당, 신령들 그리고 조상의 사령들이 상징적으로 제전에 모셔지고, 극진한 대접을 베풀 후에 되돌려 보내진다.

4. 巫俗의 사회적인 의미

무속신앙이 강한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이런 의례행사들을 보면서 성장한 2세대들은 제주도의 무속신앙에 대한 1차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1세 어른들에 못지 않게 의례행사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봐서 무속신앙은 비록 강도에 있어서는 덜하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단지 1세만의 관심사는 아닌 것 같다. 본인이 관찰한 한 ‘오귀굿’에서의 스폰서는 3년전에 남편과 사별한 2세부인(42세)이었다. 그의 아버지(사망)와 어머니, 그리고 시집이 모두 제주도 출신이었다. 남편이 사망한 직후에 굿을 하려고 했으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간 돈을 모아 이제서야 오귀굿을 올려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4박 5일 간에 거행된 이 굿에는 스폰서와 그의 어머니만이 나왔고, 비용은 적어도 200만엔이 소요되었다고 했다. 현재 이구노 지역에서 스텝파를 경영하고 있는 이 부인의 외모에서 이런 거금이 드는 굿을 거행할만한 사람같지는 않았지만, 당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려는 오귀굿을 치루는 그의 진지한 태도는 결코 1세의 어머니에 못지 않았다.

재일동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속이 적어도 朝鮮寺와 같이 불교의 틀과 습합이 되었거나, 아니면 불교의 틀을 빌려서 일본사회에 적응하게 되면서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서 의례전문가들은 신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전자는 온갖 불리한 여건에서도 동포들이 곳곳이 현실생활에 적응하면서 생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에 정신적인 기둥의 역

할을 해왔다고 생각된다. 사실 수많은 조선사들은 마치 제주에서의 본향당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고, 거기에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기도 하는 등 조선사들과 신자가정들 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 무속은 ‘現世利益’을 꾀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오오사가의 동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로는 단순한 주술적인 신앙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무속적인 의례행위를 통해서 제주사람들이 통합되고, 제주사람이 아이덴티티가 유지되고 재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무속은 제주사람들로 하여금 제주사람으로 남아있게 하는데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점은 제주사람들로 하여금 배타적인 ‘사회적인 섬’을 형성하게끔 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고려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일본사회에서 은갓 역경을 무릅쓰면서도 생활기반을 구축하는데에 그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한 생존전략의 하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문 헌 목 록

- 이문웅. 1988. “재일 제주인의 의례생활과 사회조직”. 『濟州島研究』 제 5 집, pp. 51-58.
- Hardacre Helen. 1988. *The Religion of Japan's Korean Minority: The Preservation of Ethnic Identi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Korean Research Monograph, No. 9).
- 飯田剛史. 1987. “十王祭：生駒の朝鮮寺儀禮”. 『日本宗教の複合的構造と都市住民の宗教行動の關する實證的研究：宗教調査』(大阪大學 人間科學部), pp. 133-150.
- 宗教社會の會(편). 1985. 『生駒の神 : 現代都市の民俗宗教』. 日本大阪：創元社.